

Issue Brief

JEJU WOMAN & FAMILY RESEARCH INSTITUTE

[No.35]

발행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발행일: 2019. 4. 29 | 발행인: 이은희

제주지역 일·생활 균형 지수와 시사점

손태주¹⁾

목 차

1. 연구 목적
2. 제주 및 전국 일·생활 균형 지수
3. 일·생활 균형 지수 영역별 제주지역 여건
4.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목적

-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별 일하는 방식 및 문화 등과 관련된 비교 가능한 정보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고용노동부에서는 2018년 12월 「2017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²⁾」를 개발하여 광역 시·도 단위로 관련 통계를 종합하고 지수화한 일·생활 균형 지수를 처음 발표함(2018.12.21.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일·생활 균형 지수는 세부지표별로 설정한 기준값³⁾에 도달한 정도를 점수화해 산출함

일·생활 균형 지수

- **정 의** : 시·도의 일·생활 균형 세부지표별로 설정한 기준값³⁾에 현재 도달 정도를 종합·점수화
- **특 징** : 일·생활 간 시간적 균형, 인식·태도의 균형, 성별 균형 등 관련지표를 종합하여 평가
- **목적** : 지역별 일하는 방식 및 문화 등에 관한 인식 수준 점검 및 일·생활 지원 정책 관리
- **지표체계** : 4개 영역, 24개 지표

영역	세 부 지 표
1. 일 영역	① 총 근로시간 ② 초과 근로시간 ③ 휴가기간 ④ 유연근무제 도입률 ⑤ 유연근무제 이용률
2. 생활 영역	① 남성 가사노동 시간 비중 ②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③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④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⑤ 평일 여가시간 ⑥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⑦ 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3. 제도 영역	① 여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②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③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④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⑤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⑥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⑦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4. 지자체의 관심도 영역	① 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②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 노력 ③ 담당조직 유무 ④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⑤ 가족문화 관련시설 현황

- **산정방법** : 일·생활 균형 최상위상태는 4개 영역 종합하여 합산한 100점
 - 해당지역의 평균 점수는 현재 기준점에서 일·생활 균형의 도달한 수준임

- 본 연구에서는 타 시도와 비교한 제주지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향후 지역 사회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함

2) 일·생활 균형 지수는 고용노동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개발한 것임(2016~2017년).

3) 기준값은 최근 관련 추세 분석을 통한 2023년 추정값(지역별 추정값 중 최대치)을 세부지표별로 설정한 값임.

2. 제주 및 전국 일·생활 균형 지수

▣ 제주의 일·생활 균형 지수는 전국 평균 수준인 37.1점(100점 만점)으로 아직 낮은 단계

- 제주는 노동시간의 길이와 관련된 일 영역은 전국 평균보다 0.8점 높았지만 나머지 3개 영역인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영역은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지역별로는 서울(43.1점), 부산(39.5점), 대전(38.4점)이 다른 시도에 비해 일·생활 균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은 남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업장 비율 등 제도 영역이 다른 시·도 보다 우수한 것을 살펴볼 때, 안정적인 대기업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예측됨
부산은 4개 영역 모두에서 전국 평균보다 점수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표 1] 17개 시도별 일·생활 균형 지수(2017)

(단위 : 점)

구분	총 계		일 영역 (22.1)	생활 영역 (30.1)	제도 영역 (30.1)	지자체의 관심도 영역 (30.1)
	점수/100.0	순위				
전국	37.1	-	7.9	14.5	8.7	6.0
서울	43.1	1	9.2	15.0	14.8	4.2
부산	39.5	2	8.1	15.3	9.3	6.9
대전	38.4	3	8.2	15.1	9.6	5.5
울산	38.2	4	8.1	14.9	8.3	6.9
경남	37.7	5	7.6	15.5	8.3	6.3
전북	37.4	6	7.4	15.2	8.2	6.6
경기	37.2	7	8.2	13.9	8.2	7.0
제주	37.1	8	8.7	14.2	8.5	5.6
경북	36.6	9	7.3	13.8	7.7	7.7
대구	36.5	10	7.7	14.1	7.8	6.9
강원	36.4	11	8.5	13.9	8.0	6.1
세종	36.2	12	7.7	14.1	9.1	5.3
인천	36.1	13	8.0	14.9	7.7	5.5
광주	36.1	13	8.1	14.0	7.6	6.4
전남	35.2	15	7.6	15.0	8.3	4.3
충북	34.8	16	7.1	13.7	8.7	5.3
충남	34.8	16	7.3	14.0	8.3	5.2

출처: 고용노동부 2018. 12. 21.일자 보도자료

3. 일·생활 균형 지수 영역별 제주지역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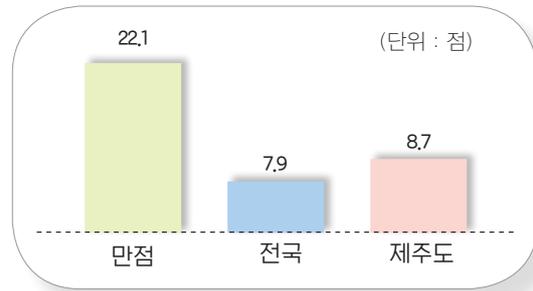
1) 일 영역

- **평가지표** : 일 영역은 근로시간과 근로유연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고, 5개의 세부지표는 총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휴가시간, 유연근무제 도입률, 유연근무제 이용률임
(일 영역 총점=22.1점)

■ 일 영역에서의 제주는 8.7점으로 전국 평균(7.9점)에 비해 높음

- 제주는 휴가 기간이 7.7일로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긴 편이고, 2018년 4월 기준 제주지역 5인 이상 상용근로자의 초과 근로시간 (월 6.6시간)은 타 시·도에 비해 짧게 나타남

[그림 1] 전국 및 제주의 일·생활균형 지수 일 영역 수준(2017)



주: 일 영역의 5개 세부지표 중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율', '유연근무제 이용률'은 자료 미생산 또는 불충분으로 지수 산출 시 미포함.

[표 2] 17개 시도별 총 근로시간과 초과 근로시간 및 경제활동참가율(2018)

구분	①5인 이상 상용근로자		②경제활동참가율		
	(월)총 근로시간	(월)초과 근로시간	전체(%)	남성(%)	여성(%)
전국	176.3	11.0	63.1	73.7	52.9
서울	172.7	12.5	62.6	71.9	54.1
부산	175.8	8.5	58.1	68.4	48.6
대구	179.8	13.0	60.9	70.0	52.3
인천	179.1	12.4	65.7	76.3	55.4
광주	174.8	9.3	61.7	71.2	52.8
대전	170.6	7.8	61.3	70.9	52.0
울산	177.1	17.6	61.8	74.9	48.3
세종	-	-	63.2	75.4	51.3
경기	178.2	11.4	64.4	76.2	52.7
강원	176.1	11.5	62.5	70.6	54.7
충북	183.2	18.0	64.9	75.6	54.2
충남	182.6	19.6	65.6	76.5	54.4
전북	180.2	15.7	59.9	70.7	49.6
전남	179.8	12.8	64.2	73.5	55.2
경북	181.6	18.2	64.2	75.6	53.1
경남	182.6	19.0	63.3	75.5	51.1
제주	178.1	6.6	69.8	77.0	62.7

출처 : ①총 근로시간과 초과 근로시간 : 한국고용정보고용통계(2018.4.), ②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018).

2) 생활 영역

- **평가지표** : 생활 영역은 가정생활과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고, 7개의 세부 지표는 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평일 여가시간,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일·여가생활 균형 정도임(생활 영역 총점=30.1점)

■ 생활 영역에서 제주는 14.2점으로 전국 평균(14.5점)에 비해 낮음

- 이는 평일 여가시간과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관련 지표에서의 점수가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그림2] 전국 및 제주의 일·생활 균형 지수 생활 영역 수준(2017)



• 즉, 제주는 2018년 지역성평등지수⁴⁾에서 16개 시·도 중 상위에 속한 지역이지만, 분야별 세부지표의 가족분야는 57.9점(100점 만점)으로 12위이고, 문화정보 분야는 87.2점(100점 만점) 13위 하위권 지역인 맥락으로도 예측되는 결과임

[표 3] 17개 시도별 일·생활 균형 생활 영역 관련 지표 및 지역 성평등 지수(의식·문화 관련 지표)

구분	일·생활 균형 생활 영역 관련 지표						⑤지역 성평등지수			
	①가사노동시간 (시간:분)		②기혼여성의 가사분담(%)	③평균 여가시간 (시간)		④일·가족 우선도(%)	의식·문화 관련 지표 (지표별 100점 만점)			
	남성	여성	부인이 책임*	평일	휴일	일 우선**	가족		문화·정보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전국	0:42	3:05	77.7	3.1	5.0	43.2	-	-	-	-
서울	0:40	2:57	75.4	2.7	4.3	46.7	57.3	14	90.5	8
부산	0:43	3:03	77.6	3.6	5.9	47.1	58.3	10	91.4	7
대구	0:42	3:05	81.5	3.4	5.8	43.2	59.0	5	91.5	6
인천	0:42	3:02	79.8	2.8	4.7	43.2	56.1	16	92.0	4
광주	0:46	2:55	82.9	2.9	5.2	47.1	57.4	13	91.7	5
대전	0:45	3:00	78.6	3.3	4.5	36.6	58.5	8	94.1	1
울산	0:41	3:33	81.3	3.8	6.4	40.5	61.4	2	92.8	2
세종	-	-	79.4	2.4	4.8	35.5	-	-	-	-
경기	0:40	3:03	76.7	2.8	4.8	44.0	57.2	15	92.2	3
강원	0:47	3:06	76.2	2.5	3.7	37.1	58.9	6	83.6	15
충북	0:44	3:05	76.7	2.6	4.1	41.9	58.7	7	90.1	10
충남	0:45	3:25	78.0	3.2	4.7	34.6	58.5	9	88.0	11
전북	0:42	3:08	76.9	4.6	5.9	35.7	58.1	11	84.9	14
전남	0:50	3:06	77.3	4.2	5.1	43.2	61.1	3	80.6	16
경북	0:46	3:05	84.9	3.6	6.5	47.2	59.2	4	87.7	12
경남	0:43	3:20	78.3	3.7	6.0	38.0	70.9	1	90.3	9
제주	0:49	2:56	68.0	2.9	4.5	39.6	57.9	12	87.2	13

주 * 기혼여성의 가사분담의 '부인이 책임'은 '전적으로 부인이 책임'과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의 합임.

** 일·가족 우선도의 '일 우선'은 '주로 일을 우선시 한다'와 '대체로 일을 우선시 한다'의 합임.

출처 : ①가사노동시간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14), ②기혼여성의 가사분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2018년 기혼여성의 가사분담 실태(통계청), ③평균 여가시간 : 문화체육관광부(2016), ④일·가정생활 우선도 : 통계청(2017), 사회 조사, ⑤지역 성평등 지수: 여성가족부(주재선 외, '2018년 지역별 성평등 지수 수준 분석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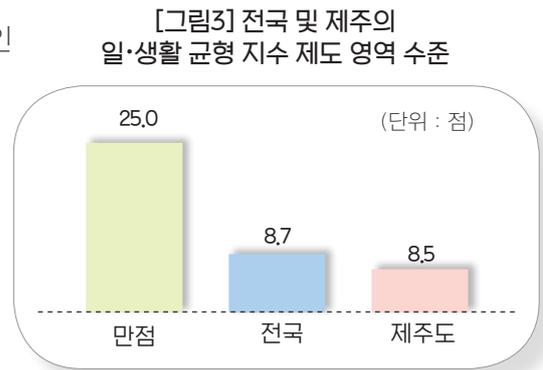
3) 제도 영역

- **평가지표** : 제도 영역은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의 활용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고, 7개의 세부지표는 여성육아휴직사용 사용장, 남성육아휴직사용 사업장,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사용 사업장,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일·가정양립제도 인지도임 (제도 영역 총점=25.0점)

4)지역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제19조) 근거, 16개 시·도의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를 계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한 값이며, 성비가 완전평등상태는 100점, 완전불평등상태는 0점임. 지표는 3개영역(사회참여, 인권·복지, 의식·문화), 8개분야, 23개 지표로 구성됨.

■ 제도 영역에서 제주는 8.5점으로 전국 평균(8.7점)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단축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

- 제도 영역의 세부지표 중 제주는 육아휴직 수급자수 중 여성비율은 2011년 98.1%에서 2018년 86.3%로 감소한 반면 남성비율은 2011년 1.9%에서 2018년 13.7%로 증가하고 있음. 육아기 근로단축 수급자수 중 여성비율은 2011년 100%에서 2018년 85.4%로 감소하고 남성비율은 2011년 0%에서 2018년 14.6%로 증가하고 있음
- 제주가 전국 평균보다 남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수급자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영역 관련 지표의 점수가 낮은 이유는 2018년 기준 도내 전(全)산업체 중 제도 실행이 열악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89.1%로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지역별 제도 영역에서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수준이 서울(14.8점), 대전(9.6점), 부산(9.3점)순으로 제도 활용 여건이 용이한 대규모 사업장이 많은 지역이 꼽힌 것에서도 예측할 수 있는 결과임



주: 제도영역의 7개 세부지표 중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사용 사업장'은 자료 미생산 또는 불충분으로 지수 산출 시 미포함.

[표 4] 17개 시도별 육아휴직 수급자 및 육아기근로단축 수급자(2011, 2018)

(단위 : 명, %)

구분	육아휴직 수급자 수(비율)						육아기 근로단축 수급자 수(비율)					
	2011년			2018년			2011년			2018년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전국	88,519 (100.0)	1,898 (2.1)	86,621 (97.9)	190,454 (100.0)	25,908 (13.6)	164,546 (86.4)	40 (100.0)	2 (5.0)	38 (95.0)	5,148 (100.0)	694 (13.5)	4,454 (86.5)
서울	41,645	896	40,749	85,712	10,994	74,718	24	1	23	1,916	213	1,703
부산	4,256	66	4,190	7,999	831	7,168	2	0	2	297	31	266
대구	2,544	46	2,498	4,992	412	4,580	1	0	1	127	17	110
인천	2,479	60	2,419	5,549	589	4,960	-	-	-	157	22	135
광주	1,716	18	1,698	3,510	331	3,179	-	-	-	80	6	74
대전	3,277	76	3,201	6,492	778	5,714	-	-	-	293	53	240
울산	1,133	16	1,117	3,191	667	2,524	1	-	1	95	19	76
세종	-	-	-	721	107	614	-	-	-	11	2	9
경기	16,257	390	15,877	36,677	4,734	31,943	8	1	7	1,144	158	986
강원	1,290	40	1,250	4,137	572	3,565	-	-	-	143	40	103
충북	1,692	33	1,659	3,587	474	3,113	2	-	2	94	19	75
충남	2,535	61	2,474	4,313	708	3,605	-	-	-	163	25	138
전북	1,651	26	1,625	3,578	359	3,219	-	-	-	90	13	77
전남	1,346	40	1,306	3,392	596	2,796	-	-	-	88	11	77
경북	2,481	47	2,434	5,328	834	4,494	-	-	-	185	25	160
경남	3,325	66	3,259	9,199	2,638	6,561	1	-	1	217	33	184
제주	882 (100.0)	17 (1.9)	865 (98.1)	2,077 (100.0)	284 (13.7)	1,793 (86.3)	1 (100.0)	-	1 (100.0)	48 (100.0)	7 (14.6)	41 (85.4)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고용보험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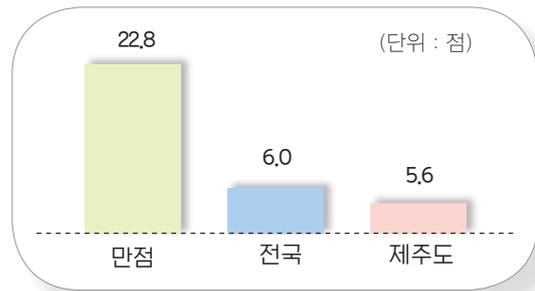
4) 지자체의 관심도 영역

- **평가지표** : 지자체의 관심도 영역은 5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 노력, 담당조직 유무,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가족문화 관련시설 현황임 (지자체의 관심도 영역 총점=22.8점)

■ 제주는 지자체 관심도 영역 수준에서 5.6점으로 전국 평균(6.0점)에 비해 낮은 편임

- 지역별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는 경북(7.7점), 경기(7.0점), 울산 및 부산(각 6.9점) 순으로 우수하게 평가됨. 특히, 부산은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점수가 높고 최근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전면개정(2018.5.16) 등과도 관련이 있다고 추정됨

[그림4] 전국 및 제주의 일·생활 균형 지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수준



주: 지자체 관심도영역의 5개 세부지표 중에서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은 자료 미생산 또는 불충분으로 지수 산출 시 미포함.

[표5] 제주 및 타시도의 일·생활 균형 관련 조례 현황

구분	조례명	제·(최근)개정일	개정 사유
부산	부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제정) 2015.7.15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족 중심에서 일·생활 균형 관점의 모든 유형의 가족과 개인 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전환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전부개정) 2018.5.16	
대구	대구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0.1.20.	일·가정 양립 생활문화의 정착과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17.12.2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제정) 2012.6.11. (일부개정) 2017.3.2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결과 반영 및 자치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위한 정비
서울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2.5.22. (개정) 2019.3.28.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정비에 따라 개정
인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2.11.19. (일부개정) 2016.5.19.	가족친화기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 및 지원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광주	광주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2.10.15	-
대전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3.12.31. (일부개정) 2015.12.31.	법령과 중복인 규정 삭제
울산	울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3.6.5.	-
경기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09.10.30. (일부개정) 2018.10.1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명칭 변경하고, 소통형치국을 신설,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 사무신설 등
충남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제정) 2019.2.20.	-
전북	전라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7.3.	-
전남	전라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5.14. (일부개정) 2017.9.28.	관련법령에 맞게 불필요한 내용 일부 삭제
경북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16.10.24.	-

주. '일·생활균형', '일·가정양립', '가족친화' 등 관련 자치법규 검색(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9.4.25.).

4.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

▣ 제주사회 일·생활 균형의 관건은 지역사회 내 인식개선과 가족친화 문화의 최우선적 조성이 필요

- 제주는 17개시도 중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62.7%로 가장 높고, 월 총근로시간은 178.1시간으로 전국 평균보다 길지만, 여가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일·생활균형이 가능한 가족친화 지역사회 문화를 만드는데 기업 경영자와 도민대상의 인식개선 및 캠페인 등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필요

- 영세기업과 관광지 특성상 서비스 업종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의 기업은 중소도시의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인력부재, 재정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법정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사업장 규모 등과 상관없이 법정 육아휴직 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양육할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 출근시간대 혹은 퇴근시간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하여 눈치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직장 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일·생활균형이 지역문화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련 제도 확산 노력 등 관심도 제고 필요

- 일·생활균형 활성화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증가, 맞벌이 가구 비율의 증가 등 가족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여성인력의 활용 필요성과 자기경력추구 등을 고려한 일·생활 균형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 일례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족중심에서 일·생활 균형 관점의 모든 유형의 가족과 개인을 포괄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자체별로 기존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 관련 조례를 부산은 「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2018.5.16., 전부개정)로, 대구는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7.12.27., 전부개정)로 성평등 사회 이슈에 맞춰 전부 개정함
- 최근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일·생활균형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역의 일·생활균형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정책현장에서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이 필요함. 즉,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일·생활균형 조례 유무, 일·생활균형제도 확산 노력, 담당조직 유무, 일·생활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가족문화 관련시설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실질적 대안방안 마련이 요구됨

